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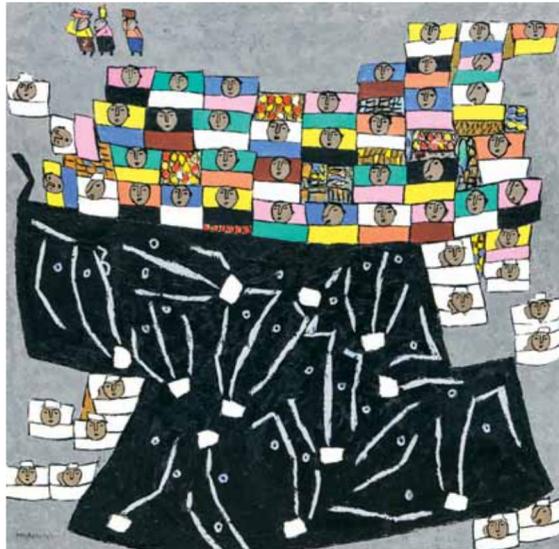
‘검은소’가 들려주는 우리들의 이야기

황영성 작가 현대화랑 초대전 ‘소의 침묵’

26일까지...주요작품 30여점 전시
30여년 작품세계 변천사 한눈에 조망
대표작 ‘가족 이야기’ 변화된 모습 보여

황영성 작가의 마음 속엔 늘 슬픈듯, 커다란 소의 눈망울이 담겨 있었다. 어린 시절 고향집에서 소를 키웠던 터라 늘 소의 울음 소리를 들었으며 직접 풀을 뜯고, 등에 올라타기도 하면서 ‘소’는 가족같은 존재가 됐다. 붓을 든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작품 속에서 ‘소’는 다양한 이미지로 구현되고 있다.

오랜 세월 꾸준히 ‘가족 이야기’를 그려온 황 작가가 이번 개인전의 제목을 ‘소의 침묵’으로 잡은 이유는 ‘소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소시장 이야기’

황영성 작가가 서울 현대화랑 초대전(26일~5월 26일)을 열고 있다. 1980년대 인연을 맺은 이래 현대화랑에서 여는 4번째 초대전으로 2010년 이후 8년만의 나들이다.

이번 초대전은 1980년대 후반부터 근래의 작품까지 작가의 작업 세계 전반을 대표하는 주요작품 30여 점을 만나는 전시로 황영성 회화의 양식적 모색과 변천사를 한눈에 조망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번 전시의 주 작품은 ‘소의 침묵’ 연작이다. 1980년대 즐겨 그렸던 검은 소 시리즈와 함께 지난 해 전시 제안을 받고 다시 몰두하기 시작한 ‘검은 소’를 선보인다. 최근 작품들은 소의 형태를 좀 더 해체, 단순화하고 간략화한 게 특징으로 짧은 선과 움직임, 리듬감을 살려 화면을 구성했다. 또 다양한 인물 배치를 통해 풍성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람들과 무리지어 어울리던 검은 소는 사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보다는 다소 추상적인 모습으로 관람객들에게 낯선 대화의 건네며 생각거리를 던져 준다. “침묵 속에 진실이 숨어 있고 더 많은 가능성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게 작가의 설명이다.

대표작 ‘가족 이야기’ 시리즈도 만날 수 있다. 작은 면 분할을 통해 칸 속에 각각의 형상을 집어넣는 방식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가족이야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군상은 무등산 중심사 인근에 살면서 늘 보았던 ‘오백나한상’이 사라지지 않고 그의 마음 속에 잉태돼 현대적 의미의 오백나한상으로 드러난 결과물이기도 하다. ‘칸’ 속에 담긴 각양각색의 소재는 다채로운 삶이 담긴 이야기책 같은 느낌이다.

언어와 기호를 활용한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이태백의 장진주’, 조조의 ‘단가행’ 등은 다양한 색감으로 한자를 써넣고 검은색과 회색 등 무채색

과 함께 포인트를 주는 붉은색등을 가미해 색다른 느낌을 준다.

그밖에 푸른빛의 이미지가 인상적인 정지용의 ‘호수’를 비롯해 나태주의 ‘꽃꽃’, 김소월의 ‘산유화’ 등 시를 소재로 한 작품들은 그림을 보다 시의 비밀을 찾아가는 재미를 준다.

황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 학장, 광주시립미술관장 등을 역임한 황 작가는 황조근정훈장, 이인성미술상, 금호예술상, 제25회 문태기미술 국제회화제 특별상 등을 수상했으며 뉴욕, 브뤼셀, 파리, 런던 등 국내외에서 수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황 작가는 “1964년 나주에서 첫 전시를 가진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앞으로 내 그림 인생을 기록하는 느낌으로 삶과 연계시키는 전시회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 02-2287-359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일본 소녀만화 속 여성상의 변천사



©마키 미야코 ‘월간 소녀잡지 리본’



©요시나가 후미 ‘서양골동 양과자점 엔티크’

롯데갤러리 30일까지 소녀만화전
작가 12명 작품 50여점 선 보여

우리나라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요시나가 후미의 ‘서양골동양과자점 엔티크’, 일본 만화팬들의 사랑을 받은 오카노 레이코의 ‘음양사’... ‘망가’로 불리는 일본 만화는 전 세계에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다. 다채로운 일본 소녀만화의 현재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롯데갤러리(롯데백화점 광주점 11층)는 일본 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와 공동으로 ‘소녀만화의 세계 - 소녀들의 열망을 비추는 거울’전을 오는 3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와타나베 마사코, 마스모토 레이 등 1950년대 이후 일본의 주요 소녀만화가 12인의 작품 50여점 전시된다.

일본만화는 크게 소년만화와 소녀만화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고유의 테마를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소년만화의 테마는 소년 주인공이 여성과 가족, 국가, 또는 적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며 성

장하는 과정을 그리는 반면, 소녀만화는 사랑의 복잡하고 다채로운 형상이 주를 이룬다.

소녀만화는 단편과 장편 등 다양한 분량과 드라마, 역사극, SF, 호러, 미스터리, 보이즈러브를 비롯하여 다채로운 장르를 넘나들며 여성들의 열망을 반영했고 전세계 소녀들을 매료시키며 큰 인기를 누려왔다.

이번 전시는 일본 소녀만화 대표작가의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사회에서 점차 변화하는 여성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전시 작품은 재현작으로 구성. 원작 작가의 사인을 넣어 특별 제작됐다. 또한 이미 출간된 일본어판, 한국어판 만화도서 등도 함께 전시해 현장감 있게 전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 기간 중에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색깔놀이 이벤트도 진행한다. 문의 062-221-18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바람따라 물길따라 황포 돛단배 향해 즐겨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앞바다서 10~11일 체험 행사

“황포 돛단배 타고 항해체험 즐겨요.”

해양문화유산인 돛단배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은 오는 10~11일, 문화가 있는 날(5~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앞바다에서 돛단배 항해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바람 따라, 물길 따라! 전통 돛단배 항해체험’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해양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이 승선하는 배는 지난 2010년 제작한

봉황호(길이 17.9cm, 폭 5.4m·사진)로 과거 용기를 싣고 다니던 전통 황포 돛단배다. 참가자들은 봉황호 선내 관람, 황포 돛 올리기, 노 젓기, 치(키)의 옛말) 잡기 등을 체험하면서 옛 사람들의 생활상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서는 1970~80년대 용기배를 타고 서남해안 곳곳을 누볐던 정금석(68세), 권석주(70세) 사공이 직접 돛과 키를 잡아 전통 항해기술을 선보인다. 또한 모형 배 만들기, 전통 낚줄 만들기, 신명 나는 뱃노래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이밖에 해양문화재연구소는 5월에 건조 중인 조



선통신사선 재현 현장에서 조기술을 체험하는 전통 배짓기 체험교실도 개최한다.

돛단배 항해체험 행사는 초·중·고교생을 비롯한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매일 1일부터 10일까지 전화(061-270-2089) 또는 전자우편(wonchun@korea.kr)을 통해 신청(회당 12명 선착순)하면 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전당 ‘상반기 시민아카데미’ 9일 첫 강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 ACC)은 2018년도 상반기 ‘ACC 시민아카데미’를 오는 9일부터 시작한다.

문화예술 및 인문 강좌는 음악, 미술, 철학 등 5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천득영, 정희자, 안재영, 이은봉 교수 등 지역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라이브 클래식 V’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등의 연주를 들으며 소풍, 베토벤 등의 작품세계를 감상하는 공연식 강연으로 피아니스트 김주영(사진)씨 등이 강사로 나선다.

또 ‘동시대 미술읽기 II’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를 통해 현재에 이르는 다양한 사회적 주제가 녹아 있는 동시대 미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행복한 나를 만드는 시간, 발레’ 강좌는 근육의 움직임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들고 행복한 ‘나’를 찾아보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이밖에도 문화와 창조성의 근본적 탐색을 통해 인간과 창조성의 구조를 고찰해보는 ‘생각하는 힘, 인문학’, ‘처음 만나는 동양건축 이야기’도 진행



한다.

직장인들을 위한 저녁 프로그램 ‘예술 밤’ 시리즈 강좌도 마련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명사 시와 배경 실화를 읽어 보며 지친 하루를 마무리 해보는 ‘예술의 밤 : 퇴근길 시 한 잔’과 영화 속 패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가 실생활에서 입는 ‘옷’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예술의 밤 : 옷으로 영화 읽기, 영화로 패션 알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그밖에 ‘아방화첩 : 그림 속 정치 이야기’ 특화 강좌는 ACC 문화창조원에서 진행 중인 ‘베트남에서 베를린까지 (From Vietnam to Berlin)’ 전시와 연계, 베트남전이 확대되던 60년대 초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80년대 말까지 정치사회적으로 격변하는 시대의 사회적 관계를 조망해본다.

자세한 내용과 수강신청은 ACC 공식 홈페이지(www.ac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899-5566.

/김미은기자 mekim@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18년 5월 3일 (목)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65,000원

(VAT포함)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룸케익증정)
16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

5월 가정의달 맞이 신양파크호텔 감사 디너쇼

2018 Dinner Show

남궁옥분

임백천

이치현과 벗님들